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조선. 한승한 / shane.han@sks.co.kr, 3773-9992
R.A. 고서영 / hail_ko@sks.co.kr, 3773-8431



미 함정 해외건조 승인, 전투함까지 갈 수 있나?

Top picks: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화엔진

- 신조선가지수는 185.64pt(-), 중고선가지수는 213.22pt(+0.58)를 기록
- 지난 8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가안보 대통령각서(NSPM) 'Rebuilding the U.S. Navy and America's Shipbuilding Industrial Base'에 서명하고, 10 U.S.C. §8679(b)의 국가안보 예외조항을 활용한 미 함정 해외건조 추진 방침을 공식화 **[그림 1]**
- 이 면제권은 의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의회 통보 후 30일간 별도의 입법적 제동이 없을 경우 적용 가능한 구조로, 현 행정부는 추가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법상 권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해외건조를 추진
- 구체적으로 최대 3개 함급(수상전투함·CONSOL 탱커·Ro-Ro)에 대해 초도 2척은 해외, 3번함부터 미국 건조하는 '핀란드 모델' 적용을 지시. 전제 조건은 총 4가지로, ①해외 초도함 건조 추진과 병행해 미국 내 조선소 신설 또는 기존 조선소 과반 지분 인수, ②미국인 인력 채용·훈련, ③모(母)조선소 기술·공법 라이선싱, ④미국 공급망 소싱 **[표 1]**
- 해당 조건을 즉시 충족할 수 있는 후보로는 한국 한화(필리조선소 보유·Austal USA 인수 추진), 이탈리아 Fincantieri(Marinette Marine 등), 캐나다 Davie(Gulf Copper 조선자산), 호주 Austal(Austal USA) 등
- 중요한 건 '최대 2척'이라는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 초도 2척으로 검증받은 조선사가 3번함부터는 미국 내 조선소(보유 혹은 과반 지분 투자)를 통해 후속함 대부분의 물량을 수주하게 될 가능성 높음. 이 때문에 HD현대(HD한국 조선해양&HD현대중공업) 또한 MASGA 명분 하에 미국 진출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는 판단
- 하지만 미 의회는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s)' 해외 건조에 대해 행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중 **[그림 2]**
- [하원 NDAA(H.R.8800 Sec.1025)]: FY27 NDAA Navy 예산에 전투함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7/22 하원 본회의를 통과. 다만 'FY27 NDAA 해군 자금'에 한정된 1년짜리 자금 제한이며 Title 10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면제권한(waiver)은 그대로 살아 있음
- [상원 NDAA(S.4784 Sec.1019)]: 대통령 면제권한(waiver)을 Title 10에서 제거하는 조항으로 영향력은 가장 강함. 대신 함급 당 최대 2척의 해외 건조 예외를 신설(벌크 연료함·전략해상수송선 대상, 수상전투함 금지). 하지만 심의 투표 부결(7/14) 및 의사진행 동의 철회(7/23)로 본회의 문턱조차 못 넘은 상황. 여름 휴회 이후 상원 활동 9/14 재개
- [하원 세출법(H.R.9495)]: 실제 자금 줄로, SCN 계정 단서조항으로 covered ship(취역 battle force ship)의 해외 건조 및 주요 구성품 해외 제작에 대한 예산을 차단. 세출위원회 보고(6/26), 본회의 미통과
- [상원 세출법]: 현재 미공개·미처리
- 결론적으로 함급에 따라 행정부와 의회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수상전투함]은 하원 수권·세출 양쪽에서 자금이 막히고 상원안까지 반영되면 대통령의 예외권한 자체가 소멸될 수 있음. 반면 [CONSOL 탱커·Ro-Ro등 보조함]은 하원 조항들의 금지 대상(battle force ship)이 아니고 상원안조차 함급당 초도 2척 해외 건조 예외를 명시적으로 열어둠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 최근 한화그룹의 미국 함정 사업 관련 행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7/17) 한화필리조선소 MRIV(해상미사일 계측 시험선) 사업 수주, (8/7) 워싱턴 LSM(중형급 상륙함) 산업계 설명회에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 참석, (8/11) 한화디펜스 USA의 오스탈 USA 인수 제안, 그리고 (8/13) 백악관 대통령각서 서명 등
- 이번에 한화가 Austal에 제안한 인수 규모는 오스탈USA 지분 100%, EV US\$10.5~12.0억(A\$17억)이나 오스탈 USA는 FY26 기준 EBIT 약 A\$1.75억 적자 전망됨에 따라 재무적 리스크 존재. 또한 아직 비구속 제안·4주 실사 단 계이고 CFIUS·DCSA·HSR 3중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
- 한화필리조선소를 통해 경험해 봤듯이, 오스탈 USA는 단기 실적 보다는 미국 함정(특히 전투함) 사업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되는 전략적 자산이 될 전망이며, 무엇보다 수상전투함 건조 및 잠수함 모듈 생산 사업 가능
- 현재 조선주 주가는 상선 부문의 성장 폭 제한을 이미 멀티플에 씌워둔 상태. 즉 상선 업황을 아무리 좋게 봐도 주력 선종의 본격적인 선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멀티플이 다시 확장되기는 어려운 구간에 진입. 따라서 조선주 리레이팅은 안정적인 상선 펀더멘털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상선 밖에서 나와야 하며, 현재 거론 가능한 추가 성장 동력은 ① 데이터센터용 4행정 중속엔진, ② FDC(부유식 데이터센터), ③미 함정 사업 등
- 이 중 미 함정 사업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전투함을 수주할 수 있어야 리레이팅이 성립될 것. MRO와 지원함·특수목적선 수주는 실적에는 일부 기여하나 리레이팅 요인으로는 삼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미국 내 조선소를 직접 보유 혹은 과분 지분 투자하고, 미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만이 미 함정 사업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이 지점에서 한화그룹이 가장 앞서 있으며, 이를 통한 리레이팅 전망
- 필리에 이어 오스탈 USA까지 인수하게 된다면 한화조선에 대한 수혜 구조는 두 단계 나눌 수 있음. ①초기 해외 발주 2척은 한화조선의 직접적 수혜, 이후 ②필리조선소(한화시스템)와 오스탈USA(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한 미국 내 후속 물량은 설계·엔지니어링·생산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 수혜로, 두 단계가 순차적으로 실현될 가능성 높음
- 결론적으로, 상선 밖에서 나올 리레이팅 동력이 두 종목에서 각각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판단. HD현대중공업은 북미 데이터센터용 4행정 중속엔진에서 '26/4월 AEG 6,271억원(684MW), 8/7 코반에너지그룹 9,560억원(1GW)으로 누적 약 1.7GW, 약 1.58조원을 확보하며 이미 수주 실적으로 증명하는 단계에 진입했고,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에 오스탈USA를 더해 미 함정 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성해가는 단계. HD현대그룹 또한 HD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HD현대중공업과 함께 미국 진출 기대감에 따른 주가 모멘텀 확대될 전망. 조선주 리레이팅의 새로운 축이 이제 막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조선주 비중확대(Overweight) 의견 유지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그림 1] 트럼프의 해외건조 예외조항 발효



PRESIDENTIAL ACTIONS

REBUILDING THE UNITED STATES NAVY AND AMERICA'S SHIPBUILDING INDUSTRIAL BASE

Presidential Memoranda | August 13, 2026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WAR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SUBJECT: Rebuilding the United States Navy and America's Shipbuilding Industrial Base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I hereby direct:

Sec. 3. Expanding Investment and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Maritime Industrial Base

(a) Pursuant to 10 U.S.C. 8679(b), I have determined that it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increase domestic shipbuilding capacity us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October 9, 2025,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inland with regard to medium icebreaker construction as a model. This "Finland Model" shall be used for up to three ship classes described in subsections (b)(i) and (b)(ii) of this section, provided that the foreign supplier:

- (i) simultaneously builds a new shipyard in the United States or assumes ownership or a majority equity position in an existing shipyard in the United States, and builds all ships after the first two such ships in United States shipyards;
- (ii) hires and trains an American citizen workforce for the United States shipyards;
- (iii) licenses the proprietary shipbuilding techniques and technologies used at the parent foreign shipyard to the United States shipyards; and
- (iv) sources a United States supply chain fo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all ships at the United States shipyards.

DONALD J. TRUMP

자료: 백악관, SK 증권

[표 1] 미 대통령각서 핵심 정리: Rebuilding the United States Navy and America's Shipbuilding Industrial Base

조항	구분	핵심 내용	보고/제출 기한	소관 / 보고 경로
Sec. 1	목적 (Purpose)	복잡한 설계와 반복적 설계변경이 비용 증가·지연·위소를 초래·조선사 간 역량·경쟁 부족으로 6대 주요 해군 함정 프로그램에 대규모 수주 한 망(백로그)·세방선 등 다른 대형 장비 구매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해외 공급자 구매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미국 조선 산업기반 투자를 유인·EO 14269(2025.4.9, 미 해양패권 회복)의 후속 조치	-	전쟁부(DoW)
Sec. 2	함모 증가·유압 시스템 복원	CVN-81 건조 시 전자장식 항공기 사출장치(EMALS)와 첨단무기엘리베이터(AWE)를 증가·유압 방식으로 대체하기 위한 소요 조치 계획(일정·재원 포함) 제출	60일	전쟁부장관(해군장관 협의) > 대통령 (OMB·APNSA 경유)
Sec. 3(a)	'핀란드 모델, 도입 (해외건조 허용)	10 U.S.C. 8679(b)에 근거해 국내 건조역량 확충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 2025.10.9 미-핀란드 중형 해방선 건조 MOU를 모델로 삼아 최대 3개 함급(수상전투함·CONSOL 탱커·Ro-Ro)에 적용	즉시 (결정)	대통령 결정
Sec. 3(a) (i)~(iv)	외국 조선사 4대 충족 조건	(i) 미국 내 조선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미국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지분 확보 + 최초 2척 이후 모든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 (ii) 미국 시민 인력 고용·훈련 (iii) 모(母)조선소의 독자 공법·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 (iv) 미국 조선소의 건조·정비 전 과정에 미국 공급망 활용	계약 조건	외국 공급자(조선사)
Sec. 3(b)(i)	수상전투함 (Surface Combatants) 신규 경쟁 획득	대잠전(ASW)·수상전·호송 호위 임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s)에 대한 새로운 경쟁 획득 방식 계획 제출 핀란드 모델(국제 조달) 기반 제안 허용	90일	전쟁부장관(해군장관 협의) > 대통령 (OMB·APNSA 경유)
Sec. 3(b)(ii)	CONSOL 유조선·Ro-Ro선	각종 무역협상에서 파악된 재원을 미국 해양 산업기반 투자에 투입하는 계획 제출 해상 통합 화물·유류 보급(CONSOL) 유조선과 Ro-Ro(화물수송)선 소요를 각각 별도로 관리 핀란드 모델 기반 제안을 허용하는 경쟁 획득 방식 마련	90일	전쟁부 + 상무부·교통부 (MARAD·해군 협의)
Sec. 3(c)	설계 변경 금지	해당 프로그램에서 성숙된 모(母)설계에 대한 반복적 설계변경 금지·변경은 전쟁부장관 승인(해군장관·OMB·APNSA 협의) 없이는 불가	상시	해군 / 전쟁부장관
Sec. 3(d)	권한 위임 및 의회 통보	10 U.S.C. 8679(a)상 특정 건조계약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국가안보 판단 권한과 8679(b)(2)상 의회 통보 권한을 전쟁부장관에게 위임 통보가 의회에 접수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 체결 불가	건별 (+30일 대기)	전쟁부장관 > 의회
Sec. 4	제5 공군 해군조선소	액추진 잠수함·함모 가동태세 제고 계획(민간 역량 활용 포함)과 제5 공군 해군조선소 설립 계획 제출 향후 20년 공격원잠 전력 중강을 감당할 드라이독 용량, 태평양함대 인접 입지(분토·알래스카·하와이·미 영토), 모든 연천·계획 잠수함급을 수용하는 신규 드라이독 최대 3기, 민관협력(PPP) 등 혁신적 재원조달	120일	전쟁부장관(해군장관 협의) > 대통령 (OMB·APNSA 경유)
Sec. 5	부품 정비센터 설립	잠수함 정비 산업기반이 요구하는 신규 부품 수령 및 노후 부품 재정을 위한 부품정비센터(Component Repair Center) 설립 계획·주요 도로·철도·수로망에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 선정, 로스앤젤레스·버지니아·시애틀·오하이오·컬럼비아급 각각 최소 1개 'ship set' 예비 장비 유지	90일	전쟁부장관(해군장관 협의) > 대통령 (OMB·APNSA 경유)
Sec. 6	NAVSEA 개혁	해군해양계사령부(NAVSEA)에 대한 검토 및 인사·조직·구조 개혁 포함 제출 함정·체계 인도 속도에 따른 성과 기반 책임 도입, 권료주의·규제 축소, 조직 내 상충하는 우선순위 제거 성숙화된 모설계에 대한 재설계·반복 설계변경 강요 금지	120일	전쟁부장관(해군장관 협의) > 대통령 (OMB·APNSA 경유)
Sec. 7	일반 규정	기존 법상 부처·기관장 권한 및 OMB 기능을 침해하지 않음 관계 법령과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이행 어떠한 실제적·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설하지 않음	-	-

자료: 백악관,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그림 2] 미국 함정 해외건조 관련 입법 현황



자료: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 주요뉴스

정기선-빌 게이츠 회동...차세대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협력키로 (연합뉴스 / 26.08.14)

- HD현대와 테라파워, 현대건설이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 SMR 시장을 공략
- HD현대는 향후 원자로 용기를 연간 2~3기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에 속도 낼 계획

한화, 거제서 미 군함 건조 가능...HD현대, 미 조선소 인수 속도낼듯 (매일경제 / 26.08.14)

- 백악관은 외국 조선업체가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하려면 미국 내 새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조선소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근로자 고용 및 미국 내 공급망 구축 조건으로 초기 2척까지 해외 건조 가능

한화오션·한화에어로, 미 해군 및 해병대 중형상륙함 프로젝트 공급망 합류 (더구루 / 26.08.10)

- 한화필리조선소가 미 해병대 중형상륙함(LSM) 도입 사업에 주요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 볼링거와 핀칸티에리가 초기 5척 건조를 나눠 맡으면서 필리조선소는 잔여 옵션 3척의 수주 혹은 블록/모듈 등 핵심 공급망 파트너 참여 예상

◎ 신조선가 Table

선종		규모(Size)	단위	2024	2025	Last	Current	증감
Tankers (탱커)	VLCC	320,000	dwt	129.00	128.00	131.00	131.00	-
	Suezmax	157,000	dwt	90.00	86.00	90.00	90.00	-
	Aframax	115,000	dwt	75.00	72.00	75.50	75.50	-
	MR	51,000	dwt	52.00	49.00	52.00	52.00	-
Bulkers (벌커)	Capesize	180,000	dwt	76.00	75.00	76.00	76.00	-
	Panamax	81,000	dwt	37.50	36.25	38.25	38.25	-
	Handymax	62,000	dwt	34.75	33.25	35.25	35.25	-
	Handysize	35,000	dwt	27.38	26.26	27.83	27.83	-
Gas Vessels (가스운반선)	LPG	91,000	cbm	122.00	114.50	113.50	113.50	-
	LNG	174,000	cbm	260.00	248.00	248.50	248.50	-
Dry Cargo (드라이카고)	Container	23,000	teu	275.00	262.00	259.00	258.00	▼1.00
	Container	13,000	teu	183.00	172.00	173.00	173.00	-
	Container	2,750	teu	43.50	45.00	45.50	45.50	-
	Car Carrier	7,000	ceu	97.00	90.00	91.50	92.00	▲0.50
Newbuilding Price Index (신조선가지수)			pt	189.16	184.66	185.64	185.64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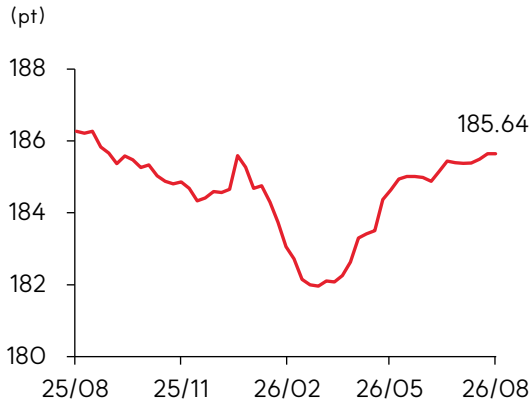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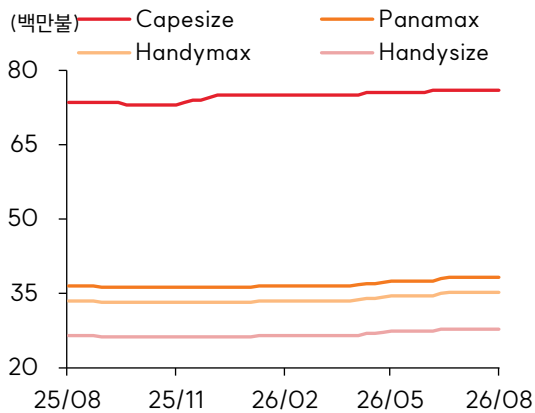
◎ 신조선가 Chart

신조선가지수 (Newbuilding Pric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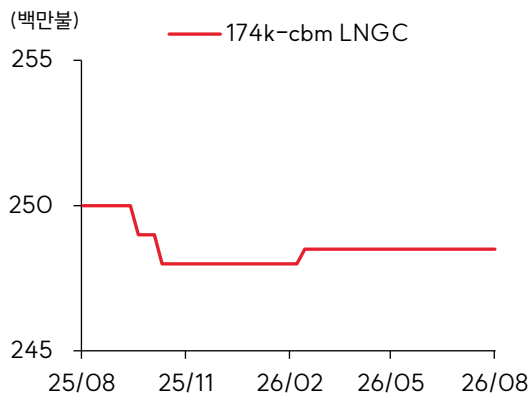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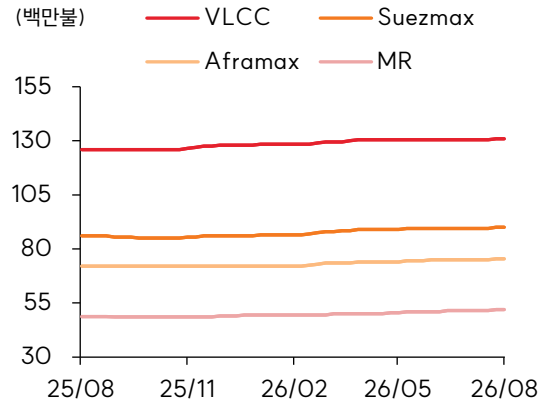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LNG 운반선(LNGC)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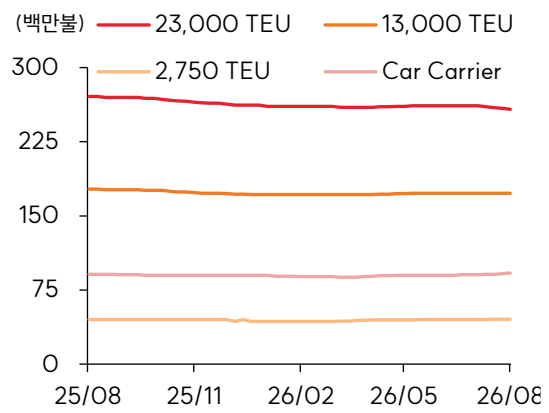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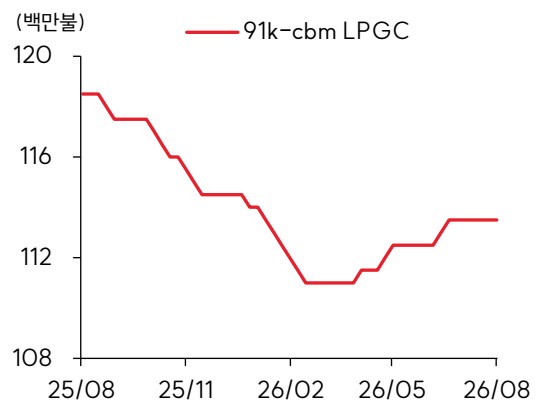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선(Container) 신조선가



자료: Clarksons, SK 증권

LPG 운반선(LPGC) 신조선가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 중고선가 Table

선종		규모(Size)	단위	2024	2025	Last	Current	증감
Tankers (탱커)	VLCC Resale	310,000	dwt	149.00	150.00	183.00	182.00	▼1.00
	Suezmax D/H Resale	160,000	dwt	97.00	97.50	120.00	130.00	▲10.00
	Aframax D/H Resale	105,000	dwt	82.00	80.00	95.00	95.00	-
	Panamax D/H Resale	73,000	dwt	63.00	60.00	75.00	75.00	-
	MR D/H Resale	51,000	dwt	52.00	53.00	58.00	58.00	-
	Tanker Secondhand Index		pt	203.39	206.92	255.94	257.04	▲1.09
Bulkers (벌커)	Capesize Resale	180,000	dwt	75.50	78.00	81.50	81.50	-
	Panamax Resale	82,000	dwt	40.00	39.50	45.50	46.00	▲0.50
	Handymax Resale	63,000	dwt	39.00	38.50	43.50	43.50	-
	Handysize Resale	38,000	dwt	34.25	34.00	37.00	37.50	▲0.50
	Bulk Secondhand Index		pt	186.83	194.32	226.50	227.84	▲1.35
Containership (컨테이너선)	Container 10 Yr	8,800	teu	65.00	82.00	83.00	83.00	-
	Container 10 Yr	6,600	teu	55.00	76.00	76.00	76.00	-
	Container 15 Yr	4,500	teu	38.00	41.00	46.00	46.00	-
	Container 10 Yr	2,600/2,900	teu	31.00	37.00	41.00	41.00	-
	Container 10 Yr	1,700/1,900	teu	21.50	28.00	32.00	32.00	-
	Container Secondhand Index		pt	72.77	82.60	85.46	85.46	-
Secondhand Price Index (중고선가지수)			pt	175.97	191.07	212.65	213.22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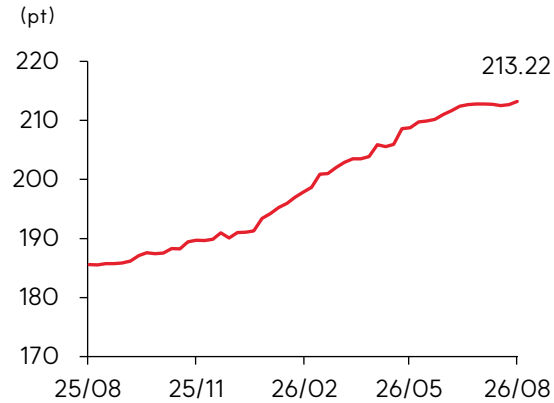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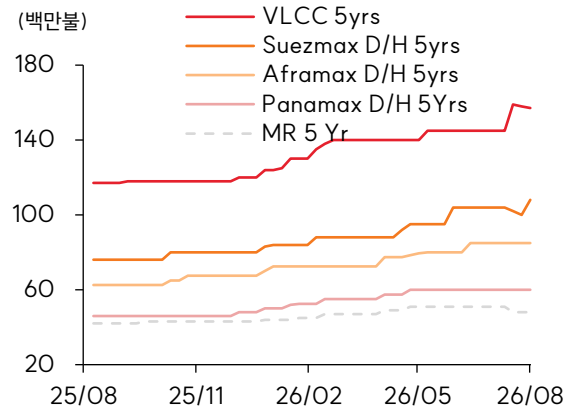
◎ 중고선가 Chart

중고선가지수(Secondhand Pirc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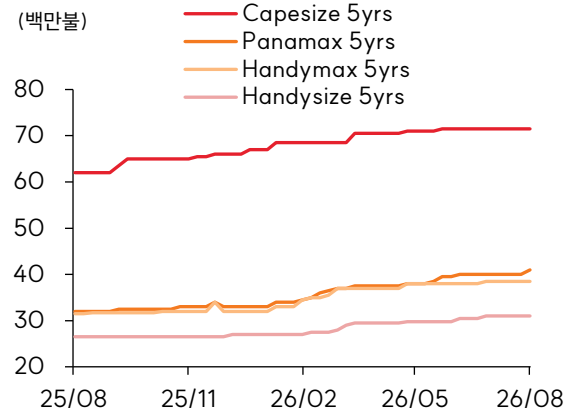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5yr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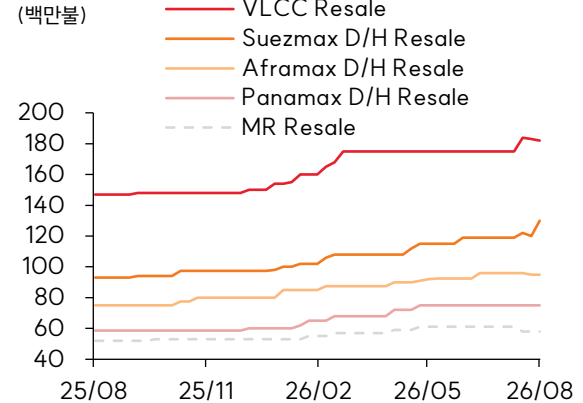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5yrs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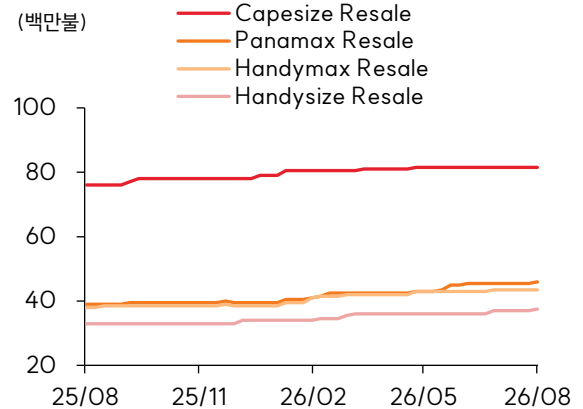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리세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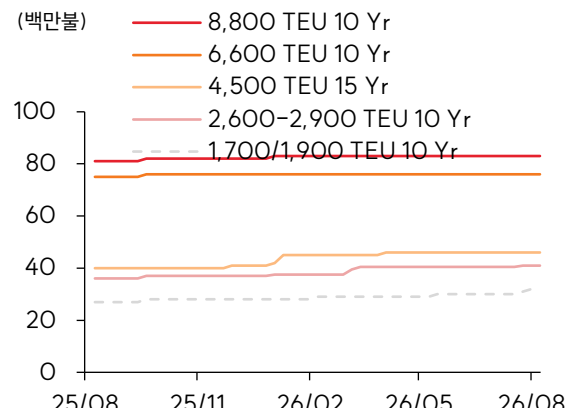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리세일가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10yrs 중고선가



자료: Clarksons, SK 증권



◎ 신조선 발주량 (Newbuilding Activity)

선종	발주 척 수			2026		
	2023	2024	2025	Last	Current	YoY
Oil Tankers	392	444	294	454	483	122%
Chemical & Spec. Tankers	141	253	111	93	95	-7%
LPG Carriers	113	146	55	99	100	170%
LNG Carriers	66	93	60	66	66	83%
Bulk Carriers	632	538	426	378	390	16%
Containerships	188	380	644	469	484	-2%
General Cargo Vessels	252	237	192	114	128	-28%
Ro-Ro/Car Carriers	88	76	9	44	44	464%
Reefer Vessels	22	5	3	2	2	-72%
Offshore Vessels	91	155	132	83	83	-38%
FPSO/FSU	4	9	8	10	10	85%
Passenger & Cruise Ships	32	60	79	26	27	-53%
Other Misc. Vessels	12	16	23	17	17	-36%
Total Contracting	2,033	2,412	2,036	1,855	1,929	17%

자료: Clarksons, SK 증권

◎ 중고선 거래량 (Sales&Purchases)

선종		거래 척 수			2026		
		2023	2024	2025	Last	Current	YoY
Tankers (탱커)	Total No. Sales(척)	580	408	436	380	387	51%
	Total DWT(,000)	56,769	36,938	47,510	47,884	48,673	74%
	Total Value (\$m)	19,425	14,238	14,698	18,841	19,291	128%
Bulkers (벌커)	Total No. Sales(척)	721	799	836	552	565	19%
	Total DWT(,000)	54,817	59,650	61,817	38,225	39,351	15%
	Total Value (\$m)	12,987	15,299	13,763	10,473	10,839	51%
Other (기타)	Total No. Sales(척)	945	860	757	523	536	13%
	Total DWT(,000)	18,597	19,588	14,037	9,175	9,471	7%
	Total Value (\$m)	19,470	19,922	16,336	12,302	12,836	31%
Total (합계)	Total No. Sales(척)	2,246	2,067	2,029	1,455	1,488	28%
	Total DWT(,000)	130,183	116,177	123,365	95,284	97,495	37%
	Total Value (\$m)	51,882	49,459	44,797	41,615	42,966	69%
	Average\$/Dwt	399	426	363	437	44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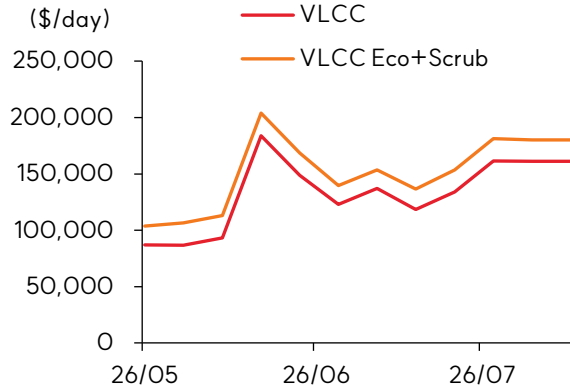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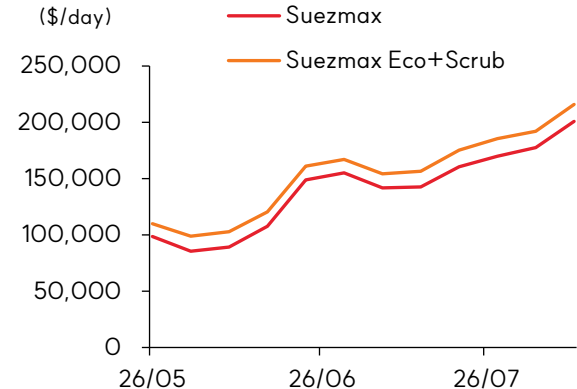
◎ 운임 Chart

탱커(Tanker) VLCC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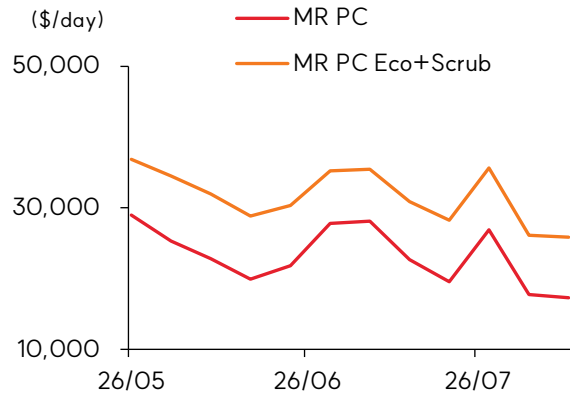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Suezmax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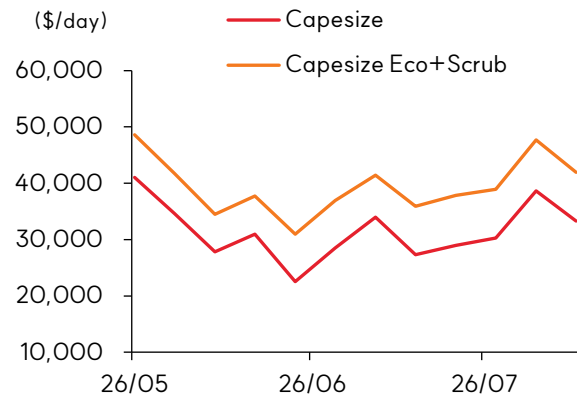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MR P/C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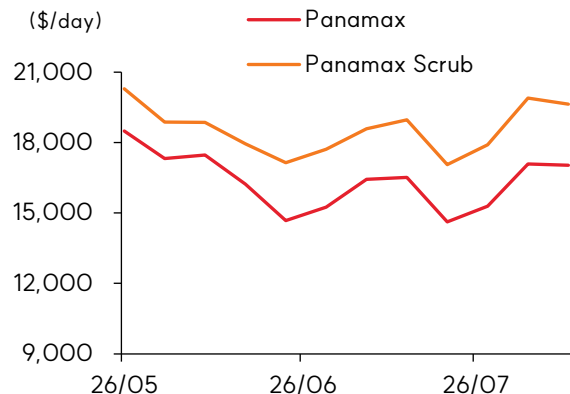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Capesize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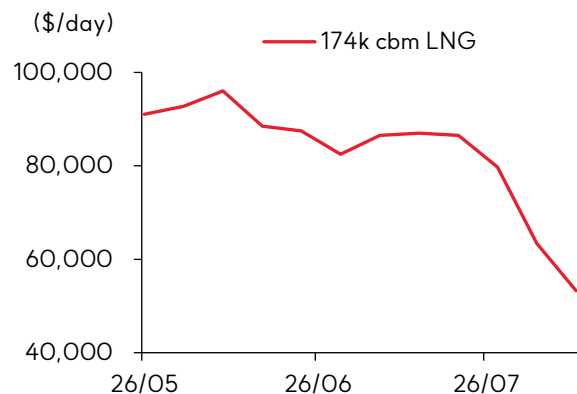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벌커(Bulker) Panamax 운임



자료: Clarksons, SK 증권

LNG 운반선 스팟(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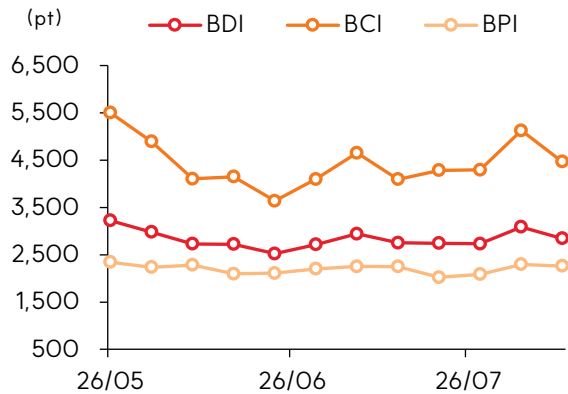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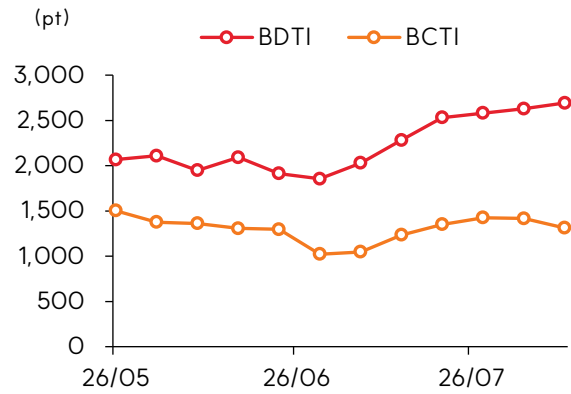
◎ 운임 & 기타 Chart

발틱 벌커(Bulker)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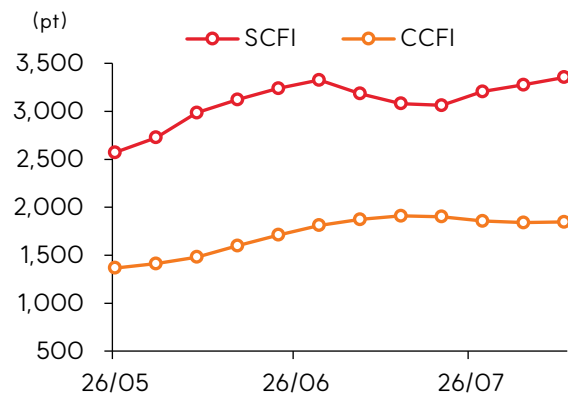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발틱 탱커(Tanker)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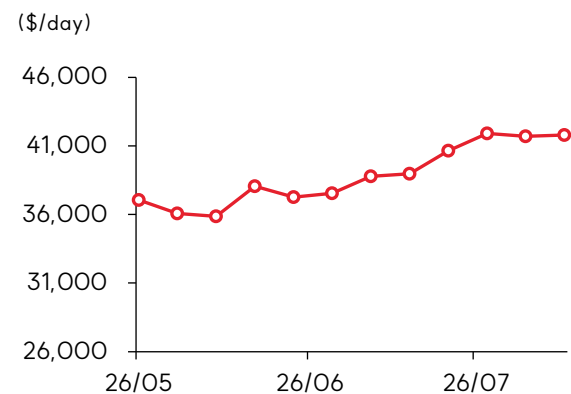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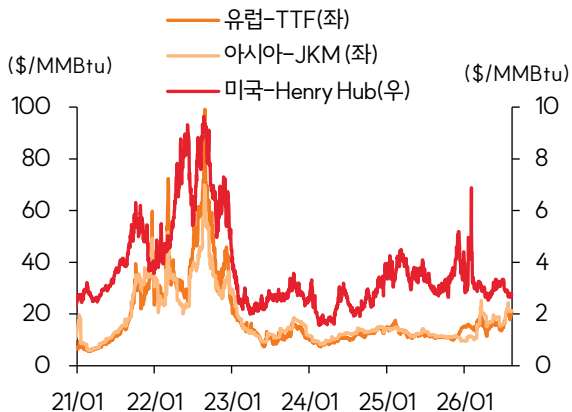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Clarksea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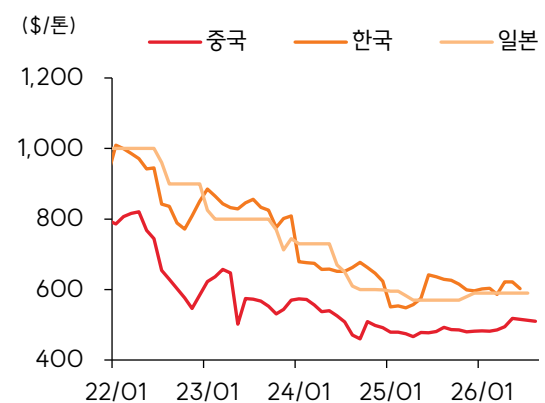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글로벌 LNG 가격



자료: Bloomberg, SK 증권

한/중/일 후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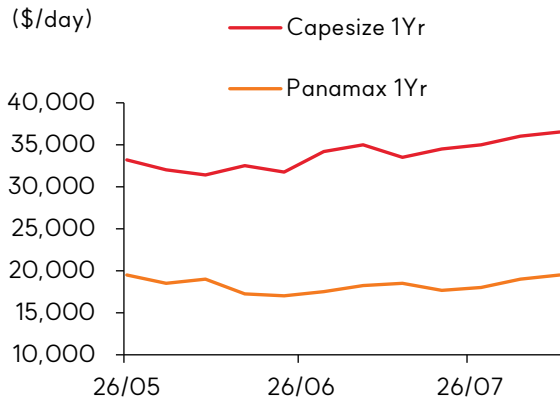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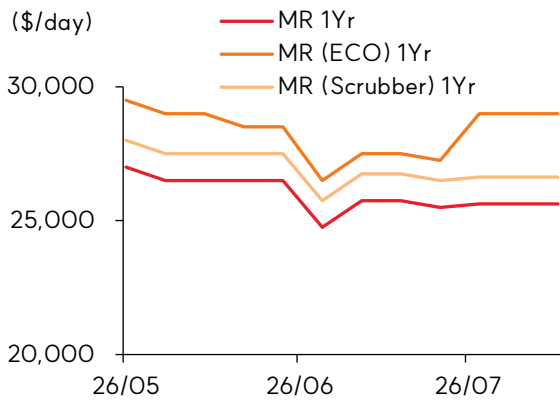
◎ 용선료(Timecharter Rate)

벌커(Bulke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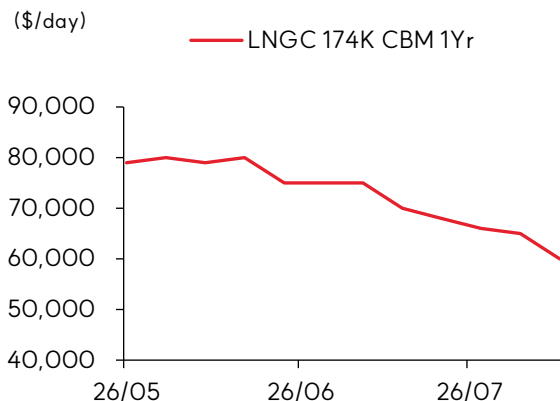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MR 탱커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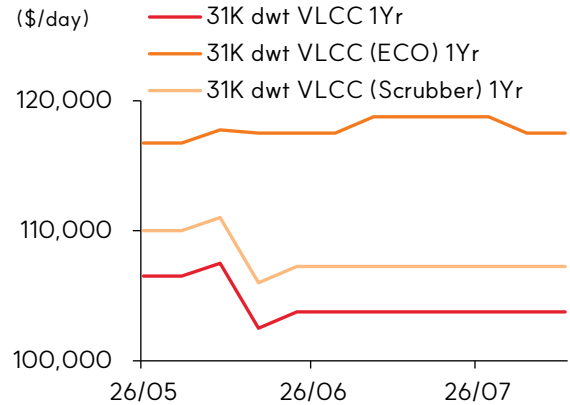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LNG 운반선(LNGC)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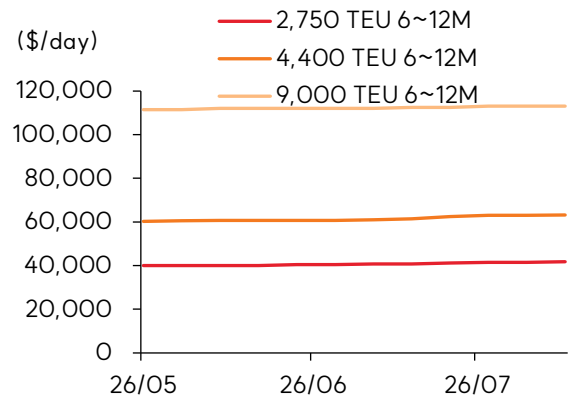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탱커(Tanker) VLCC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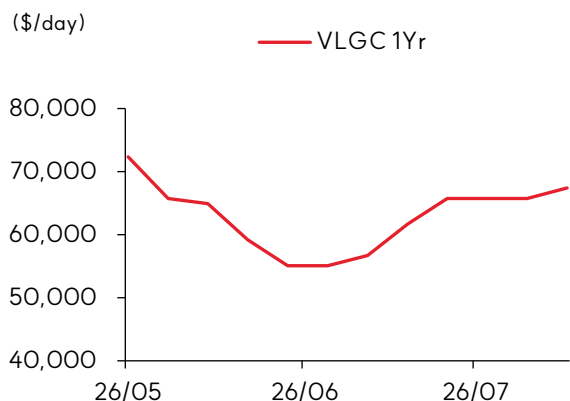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 용선료



자료: Clarksons, SK 증권

LPG 운반선(LPGC)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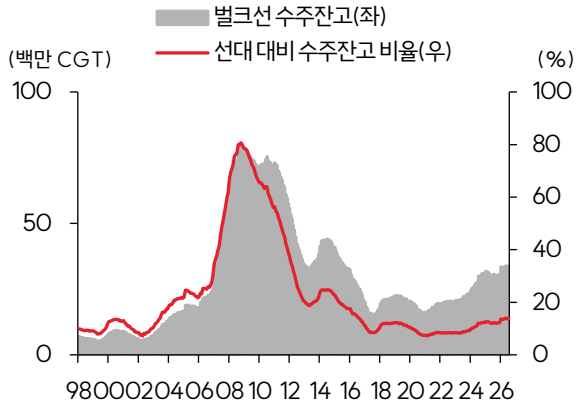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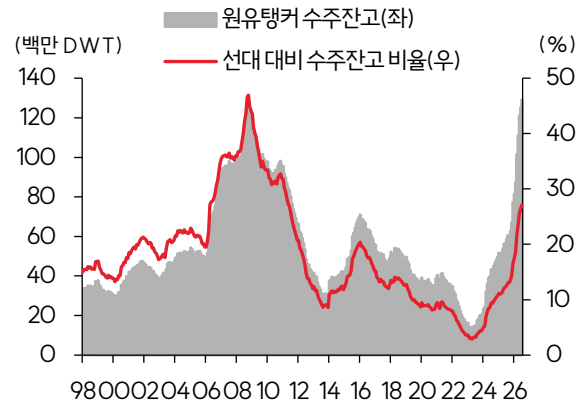
◎ 선종별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벌크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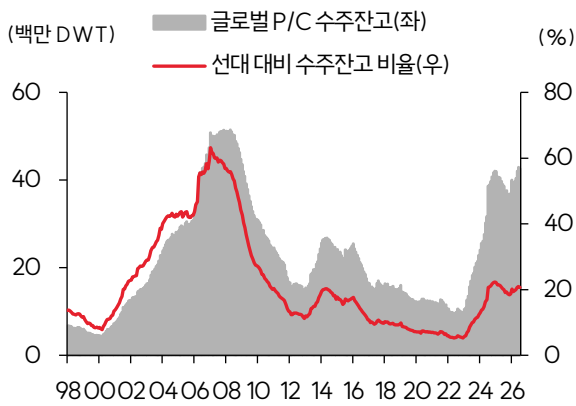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원유탱커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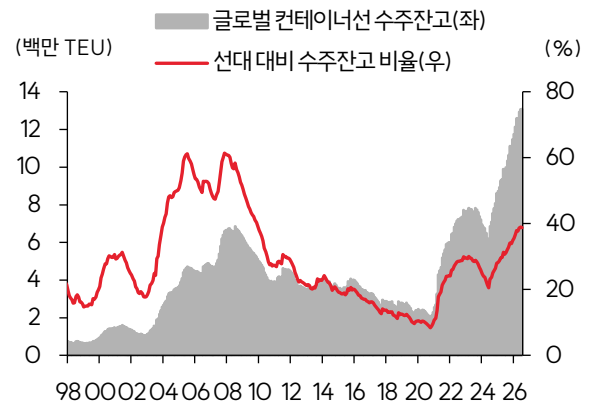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P/C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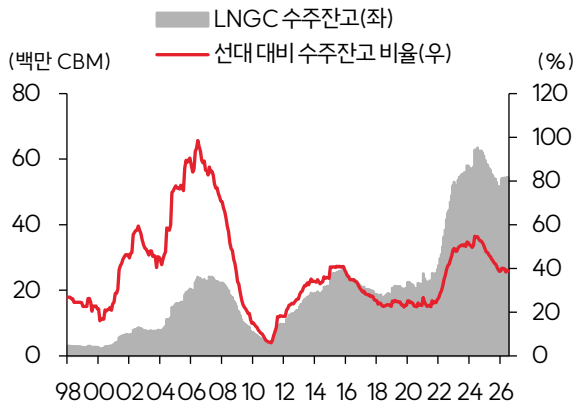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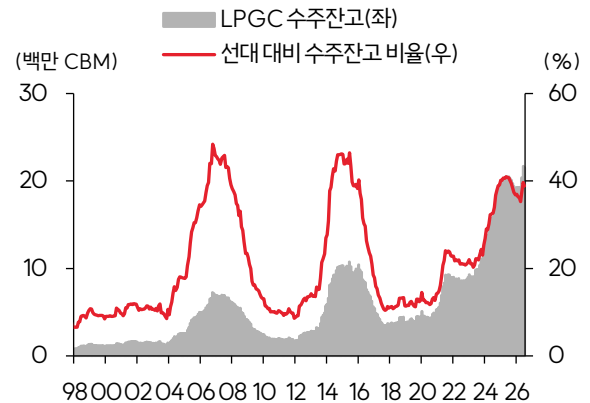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LNGC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자료: Clarksons, SK 증권

LPGC 수주잔고 및 선대 대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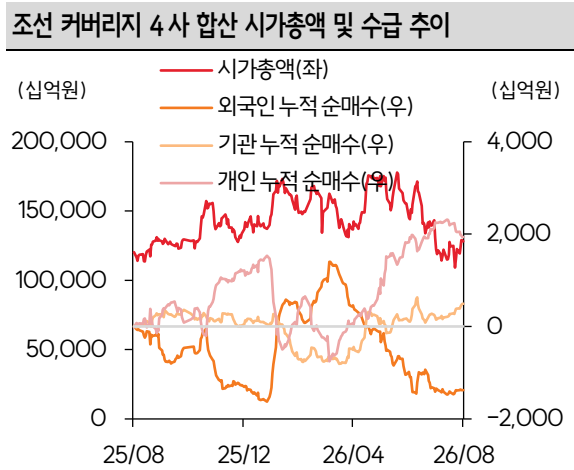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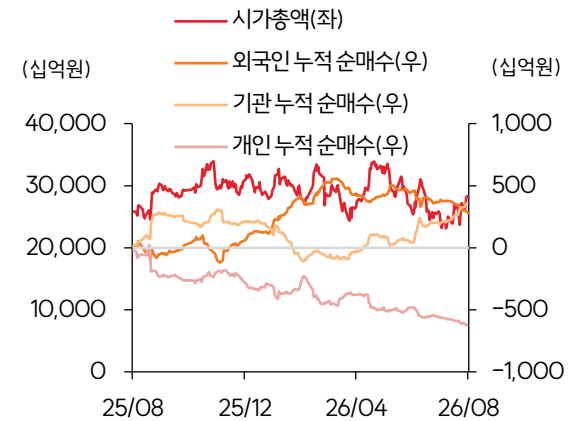


◎ 조선 커버리지 4사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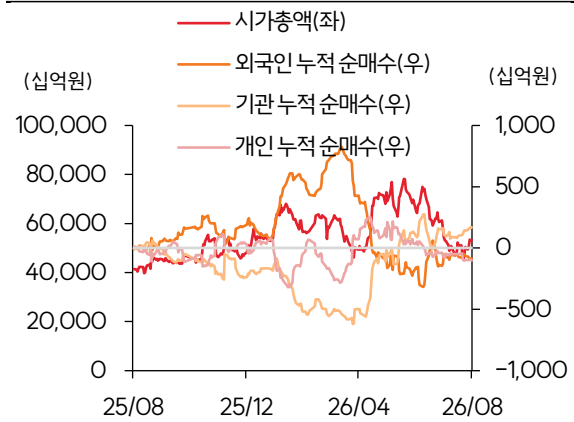
자료: Quantifwise, SK 증권

HD 한국조선해양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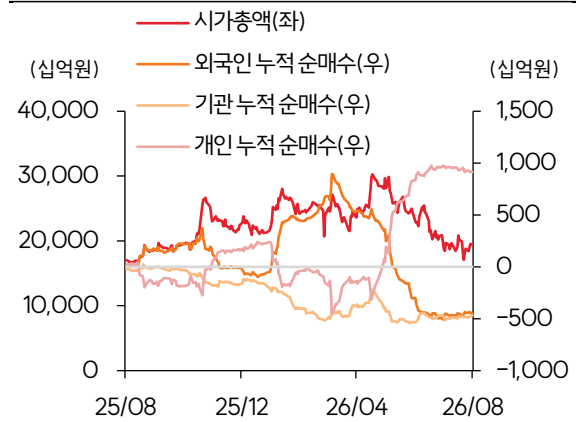
자료: Quantifwise, SK 증권

HD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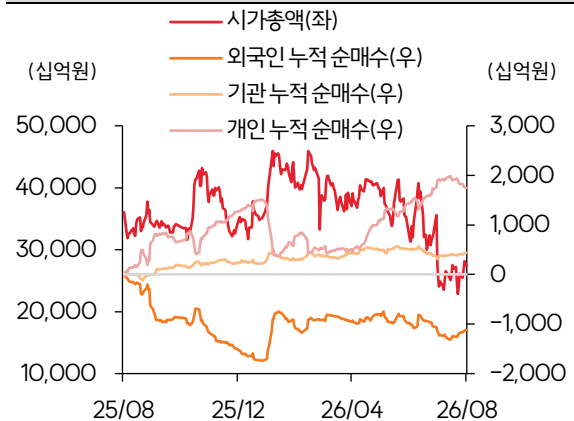
자료: Quantifwise, SK 증권

삼성중공업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자료: Quantifwise, SK 증권

한화오션 시가총액 및 수급 추이



자료: Quantifwise, SK 증권

한승한의 수주산업 위클리



◎ Coverage Table

종목명	종가 (원, pt)	시가총액 (십억원)	등락률						12M Fwd	
			1D	1W	1M	3M	YTD	1Y	P/B	P/E
코스피	6,978		+2.4%	+11.5%	-4.2%	-6.9%	+65.6%	+116.3%	1.4	5.7
WI26 조선	8,332		+3.0%	+2.2%	+10.2%	-18.3%	-4.4%	+5.4%	2.6	10.7
HD 한국조선해양	386,000	27,318	+3.9%	-3.1%	+15.2%	-7.2%	-5.2%	+2.0%	1.6	6.4
HD 현대중공업	510,000	53,530	+2.8%	+0.8%	+8.3%	-20.3%	+0.2%	+6.9%	4.0	15.0
삼성중공업	22,300	19,624	+1.4%	+1.1%	+2.1%	-23.9%	-7.5%	+18.1%	3.1	15.1
한화오션	95,800	29,354	+5.6%	+7.2%	+16.8%	-18.9%	-15.7%	-10.1%	3.1	14.8
한화엔진	49,050	4,093	+1.7%	+15.4%	+3.8%	-31.5%	+14.2%	+27.4%	4.2	15.4
HD 현대마린솔루션	196,800	8,823	-1.8%	+0.2%	-2.6%	-8.7%	+1.7%	-	8.0	22.0
HD 현대마린엔진	58,200	1,974	+0.3%	+5.4%	-0.2%	-26.5%	-35.0%	-29.9%	3.4	12.2
한국카본	25,150	1,300	+3.5%	+8.9%	+7.9%	-35.1%	-15.7%	-17.7%	1.7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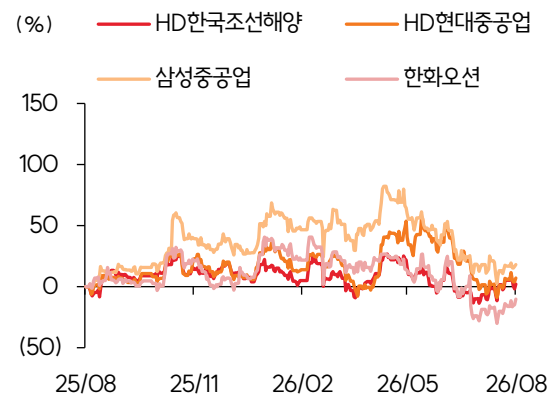
자료: Quantifwise, SK 증권

코스피 vs. 조선업 수익률 추이 (1yr)



자료: Quantifwise, SK 증권

조선 커버리지 4사 주가 수익률 추이 (1yr)



자료: Quantifwise, SK 증권

Compliance Notice

- 작성자(한승한)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 미만 > 매도